

화학제품, 연구개발비 너무 안쓴다!

매출액의 1.58%로 제조업 평균 밑돌아 ... 전자통신 7.59%의 1/4 수준

상장 화학기업 76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인 2.77%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자통신장비 7.56%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가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개발비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의 2003년 총 연구개발비는 8조7956억원으로 1사당 평균 190억원에 달해 200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2001년 1.55%에서 2002년 1.64%, 2003년 2.09%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2001년 기준으로 미국 4.0%, 일본 3.9%, 독일 4.0%에 비해 여전히 낮게 나타나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부진을 실증해주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비교(2003)

(단위: 억원, %)

구 분	연구개발비	매출액	R&D비 비율
전자통신장비	44,926	591,937	7.59
의료정밀	632	19,564	3.23
고무제품	809	36253	2.23
화학제품	6,375	404,309	1.58
섬유제품	115	29,312	0.39
제조업평균	75,765	2,731,888	2.77

한편, LG화학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전년대비 24.53% 증가해 화학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4/28>